

10-19-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계시록 4:1-11

말씀제목: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보고 듣게 되는 일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우리가 듣고 보게 될 것들을 사도요한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우리도 영 안에서 그가 듣고 본 것들을 듣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후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들은 것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하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깜짝 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용모에 대하여,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그가 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는 스물네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불타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어!’

그때에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7년 대 환란 동안 지상에 쏟아질 진노의 심판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것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리라.”

그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는 또한 천천이요 만만의 천사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의 찬양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어린양이 봉인들을 열 때에 지상에 나타나는 진노를 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열 때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봉인이 열릴 때, 붉은 말이 나와서 온 땅에 전쟁으로 인해 서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창백한 말이 나타나며 그 뒤에 사망과 지옥이 따르며 그때에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짝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쏘러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온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이 일 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 환란에서 나온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이어 그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호리병 재앙들을 통해 지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심판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심판,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는 심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됨으로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는 심판, 하늘에서 쑥이라 하는 별이 떨어짐으로 물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 전갈들이 지닌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로 인해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심판, 이역의 기병대들로부터 나오는 제신스와 유황과 불과 연기로 인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당하는 심판 등 후 삼년 반 동안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휴거되는 성도들도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을 보면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